

찬 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325장) 다 같 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던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주 기 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지침

- ①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 ②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 ③ 예배 후에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교제 합니다.

추 석 감 사 예 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제일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54 (홍은2동 338-146)

☎ 374-6161,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시편 103:1~2 인 도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 송 주와 같이 길가는 것(430장)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시편 37:3~6 인 도 자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

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설 교 『빛 같이 비추는 가정』 인 도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빛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3절). 하나님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한 것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십니다. 눅 6: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정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서 주의 복을 받고,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4절).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기뻐하고 좋아하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4절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복을 받는 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3)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5절). 모든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변하지 않는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분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